

청소년의 문화시설 향유를 위한 교육 및 체험 콘텐츠 개발에 협력

- 지스트-서울 서초스마트유스센터-(주)혼합현실설계그룹 3자간 MoU



▲ (왼쪽부터) 서초스마트유스센터 백기웅 관장, 지스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전문구 소장, (주)혼합현실설계그룹 이우현 대표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 한국문화기술연구소(소장 전문구)가 서초스마트유스센터(관장 백기웅), (주)혼합현실설계그룹(대표 이우현)과 청소년의 문화시설 향유권 확대를 위한 '문화기술 연구·개발 실증 및 서비스 확대'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협약식은 지난 6월 17일(금) 3개 기관의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초스마트유스센터에서 진행됐다.

3개 기관은 ▲ 청소년 활동·교육 콘텐츠 개발 ▲ 문화생활 향유권 보장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▲ 연구·개발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을 위한 자료 및 전시공간 지원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

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전문구 소장은 "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용 콘텐츠 개발에 협력하고, 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실증서비스를 확대할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한편 서초스마트유스센터는 서울 서초구가 설립한 청소년 활동지원기관으로 진로 탐구, 문화·예술 체험, 자기 계발 및 미래 기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.

지스트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연구·개발 중인 '제스처 및 행동인식 미디어월 서비스'와 관련해 문화유산 정보를 XR(혼합현실)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11월 서초스마트유스센터에서 선보일 예정이며, 관람객의 체험과 활동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·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.